

“한국 어머니의 위대함 전 세계에 보여줬다”

노 대통령, 하인스워드 모자와 오찬

노무현 대통령은 4일 미국프로풋볼 슈퍼볼 MVP에 오른 한국계 스타선수 하인스 워드와 그의 어머니 김영희씨를 청와대로 초청, 오찬을 함께 했다.

노 대통령은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기는 없고 아이들만 있다. 전 인생을 아이들에게 바치고 보람을 찾는데 이렇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쁘냐”며 아들을 훌륭히 키워낸 어머니의 희생과 사랑에 경의를 표했다. 노 대통령은 또 “과연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며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워드는 “어머니의 희생은 돈으로 보답할 수가 없다. 이번에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배우고 어머니의 인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나의 방문으로 혼혈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단 한명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람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노 대통령 내외는 사전에 워드 모자에게 ‘무궁화 다기 세트 및 접시’를 선물했으며, 하인스 워드는 답례로 미식축구 사인볼과 등번호가 새겨진 유니폼을 선물했다. 하인스 워드 모자와의 오찬은 1시간 30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됐다.

이날 오찬에는 노 대통령 내외와 워드, 어머니 김영희씨와 함께 김명곤 문광부 장관, 김용익 사회정책수석이 배석했다.

■ 문답 요약

▲ 노 대통령 : 쉽게 얘기하면 영웅이 돼서 돌아왔는데, 개인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고 열심히 노력해 성공해서 세계적인 영웅이 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자라나는 많은 젊은 아이들이 하인스 워드 선수를 보고 큰 꿈을 가질 수 있게 됐다. 많은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영웅이 됐다. 정말 축하한다.

▲ 워드 : 감사하다. 저는 한국의 유산과 혈통에 대해 배우기 위해 찾아왔다. 어머니의 희생을 잘 알고 있어서 이번 한국 방문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 나의 뿌리와 유산을 많이 배우고 싶다. 젊은이들의 모범과 귀감이 된다니 영광이고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이다. 어머니는 겸허하게 생각하라고 자주 말씀하셨다. 남에게 대우를 받으려면 남을 대우하라는 말씀도 하셨다. 교민 사회가 저와 어머니에게 보내준 성원에 감사한다.

▲ 권 여사 : 한국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한지 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 노 대통령 : 어머니의 뜻대로 자라기 참 어려운데, 꼭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자라줬으니 정말 착한 아들이다. 내 생각에는 본인보다 어머니가 훨씬 더 기쁠 것 같다. 특히 우리 한국의 어머니들은 자기는 없고 아이들만 있다. 전 인생을 아이들에게 바치고 보람을 찾는데 이렇게 성공했으니 얼마나 기쁘겠나.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자라줬으니 착한 아들”

▲ 워드 : 어머니는 나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 나는 일이 안 풀릴 때면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도 할 수 있었으니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매진해 왔다. 어머니의 희생은 돈으로 보답할 수가 없다. 이번에 어머니가 태어난 곳을 배우고 어머니의 인생을 되새기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워드의 발언에 이어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이 “오히려 우리는 많이 잊어버린 효성, 어머니 사랑 이런 것을 하인스 워드가 우리에게 일깨워 줬다는 점이 더욱 큰 감동을 주고 있다”며 건배를 제의했다.

노 대통령은 한식과 함께 곁들여 나온 한드미 막걸리를 소개했고, 화제는 자연스럽게 음식으로 옮겨갔다. 워드는 “어머니께서 나에게 한국음식을 만들어 줄 때는 꼭 이것은 어떤 음식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오늘 나온 것은 무엇인가”라고 물었고, 권양숙 여사는 “새로 개발한 우리의 전통음식”이라고 답했다.

▲ 워드 : 혹시 대통령도 햄버거를 즐겨 드시나.

▲ 노대통령 : 쌀밥이 좋다. 쌀밥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살도 안찌고 콜레스테롤도 낮추고 아주 좋은 식품이다. 그래서 세끼 밥만 먹는다.

▲ 김명곤 장관 : 체중조절을 어떻게 하는가.

워드 젓가락질 능숙, “수제비 좋아해”

▲ 워드 : 나는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식습관을 조심하고 조절한다. 아마 내가 은퇴하는 날이 먹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먹는 날이 될 것이다. 풋볼의 공격수는 체중을 불려야 하기 때문에 뭐든 먹어도 되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패스를 받고 민첩하게 뛰어야 하는 역할이기 때문에 체중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패스트푸드의 유혹도 받았지만 자기 절제하고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 노 대통령 : (워드가 젓가락질을 아주 능숙하게 불편 없이 하자) 젓가락을 참 잘 쓴다. 집에서 평소에 한식을 많이 먹나.

▲ 김영희씨 : 수제비를 많이 먹고 아주 좋아한다.

▲ 워드 : 처음에 한식을 집에서 만들어 먹을 때 어머니는 먼저 미국음식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한식을 준비했는데, 나는 항상 한식이 더 먹음직스러웠다. 그것을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우리 팀원도 한식을 같이 즐겨먹는다. 그래서 오죽하면 팀원들이 언제 또 갈비를 먹여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한다.

“영광스런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어머니 덕분”

▲ 워드 : 나는 오늘 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한다. 어머니께서는 항상 내가 부상당하지 않도록 많은 기도를 했고 나는 많은 축복을 받았다. 나의 어머니는 의지 하나로 미국까지 와서 직장을 두세 개씩 다니면서 나를 대학까지 뒷바라지 했고 오랜 기간 고생을 감내하면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했다. 또 이렇게 대통령도 만나게 됐다. 대단히 영광스럽다. 이처럼 영광스러운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은 모두가 어머니 덕분이다.

어머니는 나에게 소중한 가치관을 주었다. 어머니는 항상 내가 더 나은 생활을 하는 것을 보고 싶다고 하셨다. 나는 어머니가 험담을 듣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더 조심했고 더 노력했다. 어머니를 보면 나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의욕이 생긴다. 어머니를 자랑스럽게 해 드리고 싶었다. 내가 인정을 받으면 사람들은 그 이면에 있는 어머니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어머니 덕분이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인생의 희로애락을 겪었고 그것을 함께 극복했고 그 결과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이다.

▲ 노 대통령 : 말하는 것을 받아 적으면 그대로 교과서다.(웃음) 한국에서는 효도가 최고의 덕목이다. 옛날에는 효자에 대해서 나라에서 상도 줬지만 너무 큰 상을 이미 받아서 줄 것은 없다. 나중에 은퇴하면 내가 그때 대통령은 아니겠지만 효자상을 드려야겠다. 그러나 그 시간은 늦게 올수록 좋을 것 같다.

“말하는 것 받아 적으면 그대로 교과서”

▲ 워드 : 어머니는 아직도 고등학교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데 평생 일을 해 와서 그러신지 지금도 그만 두지 못하고 일을 하신다. 지금 어머니 계시는 식당이 봄방학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올 수 있었다. 이번 방학은 제 어머니가 정신적인 휴식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나는 어머니하고 둘이 어머니 옛날에 자랐던 곳 이런 곳을 오붓하게 돌아다니고 싶었는데 언론의 관심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러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다. 그러나 모든 분들이 이처럼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중하게 생각한다.

▲ 노 대통령 : 운동하면서도 공부를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나.

▲ 워드 : 나는 학교에서 운동과 함께 공부도 열심히 했다 그러면서 어려웠지만 어머니와 함께 팀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노력했다. 왜 그랬냐 하면 운동할 때도 성적이 좋지 않으면 어머니가 운동을 못하게 했다. 그래서 나는 공부를 열심히 했다. 평균이상의 성적을 내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했고 나는 고교와 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할 수 있었다.

어머니의 도움으로 학교를 다녔지만 어머니의 그것만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해서 장학금을 받아야 했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도 공부를 해야만 했다. 운동하는 사람이 두뇌측면에서 무시받지 않기 위해서도 또 열심히 공부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것이 나에게서 항상 특별한 임무였다.

지금도 나는 운동을 하지만 건물임대업 부동산 관련된 내용을 틈틈이 공부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는 미식축구보다도 현실세계의 그런 것이 더 흥미진진한 측면이 있다.

“한국어 배우지 않은 것 후회돼”

▲ 워드 : 한국어 매우 아름답다. 청와대 들어오면서 본 소나무들이 아주 멋있었다. 어릴 적에 한국이나 한국문화에 대해서 수치심을 느낀 적도 있었는데 부끄럽게 생각한다. 한국은 훌륭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지금 정말 후회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한국어를 배우지 않은 것이다. 앞으로는 어머니와 한국말로만 대화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내가 한국에 온 목적은 한국의 유산에 대해서 배우려고 온 것이다. 이전에 한국에 대해서는 한국에 가면 신발 벗고 방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런 어머니 말씀 정도로만 한국에 대해서 알았는데 더 배우기 위해서 왔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 있는 혼혈아동에 대해서 어떤 영감을 줄 수 있다면 그 아이의 난관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키워줄 수 있다면 보람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기자들이 물기를 무슨 혼혈 관련된 법 개정 그런 것을 하려는 것이냐 이런 질문도 받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아니고 말한 것처럼 좀 휴식하고 한국음식도 마음껏 먹고 한국에 대해서 배우러 왔다. 안타까운 것은 혼혈 자체가 그들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억울하게 생각할 측면이 있다. 이번 나의 방문으로 혼혈아동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고 단 한명에게라도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보람 있을 것이다

“한국에 있는 혼혈아동에 영감 줄 수 있다면 보람”

▲ 노 대통령 : 한국 사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주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과연 하인스 워드가 한국에서도 지금처럼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본다. 한국에서도 훌륭하게 성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 한국은 좋은 방향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인스 워드는 이미 우리에게 많은 희망을 주었다. 존재 자체가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다.

▲ 노 대통령 : 계속 축구 잘 하고 지금처럼 사람들에게 따뜻한 인품을 보여주기를 바란다.

▲ 워드 : 오늘 대단히 영광스럽게 초청해 주신 점에 대해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국정홍보비서관실 한유진